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치키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치키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치키다

완성된 이름

치키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치키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위로 향하여 끌어 올린다.

요약 연대표

표기	15세기	20세기	현재
치백다			
치키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위로 향하여 끌어 올린다.

🕒 문헌의 첫 기록

15세기

📖 수록 용례

5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치키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위로 향하여 끌어 올린다.

치키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치키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치히려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치키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치히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치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치히려다
15세기
- 치키다

↳ 치키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치키다’의 옛말인 ‘치혀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치혀-’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치-’와 끌다를 뜻하는 ‘혀-’가 결합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에 ‘치키-’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치키-’는 근대 국어 시기 이후 ‘ᄃᆞ’가 ‘ㄱ’로 변하여 ‘*치켜-’가 되고, ‘*치켜-’와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활용형 ‘치켜’에서 어간을 ‘치키-’로 잘못 분석함에 따라 ‘치키-’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 속의 치키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5세기 치혀-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치혀-

📖 출처 1447 용비어천가 9:39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다리예 떠딜 무를 년즈시 치혀시니.

📖 현대어 풀이

다리에 떨어지려는 말을 년지시 치켰으니.

📖 대응 원문

橋外隕馬 薄言挈之.

20세기 치키-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치키-

📖 출처 1908 은세계 44

용례 02

66 문헌 용례

동구만이 치켜 겹고 다부지게 심어 보오.

📖 현대어 풀이

동그마니 치켜 겹고 다부지게 심어 보오.

📖 출처 1923 동아일보 4월16일 ?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외투 깃을 뒤로 치키고 모자를 꼭 숙여 썼다.

📖 현대어 풀이

외투 깃을 뒤로 치키고 모자를 꼭 숙여 썼다.

66 문헌 용례

『에그 벌서 여섯 點 半일세. 갈 때가 되었군!』 하고는 치마를 치키기도 하고 粉紙로 얼굴을 닦기도 하며 웃고름을 다시 매기도 한 뒤에 방문을 열고 나왔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사내 양복을 가슴 위로까지 치키는 것은 본래 말할 것이 못 되지만은.

㉮ 현대어 풀이

사내 양복을 가슴 위로까지 치키는 것은 본래 말할 것이 못 되지만은.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치키다의 보충 설명

‘캐’가 ‘키’로 바뀌는 현상은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를 뜻하는 ‘캐키다’가 이전 시기에 ‘*개켜다’에서 온 것이나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리다를 뜻하는 ‘돌이켜다’의 방언으로 ‘돌이키다’가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치키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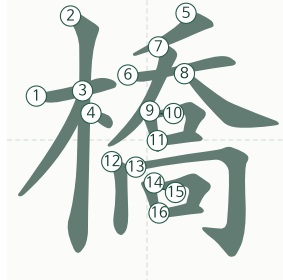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치키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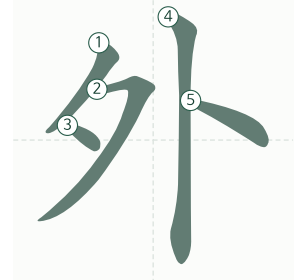
뜻·음 다리 교
총 16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橋/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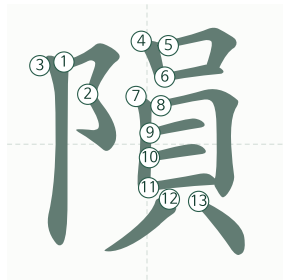
뜻·음 바깥 외
총 5획 · 부수 夕



hanja.wordrow.kr/한자/外/

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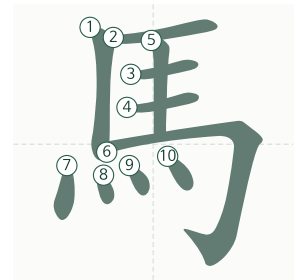
뜻·음 떨어질 운
총 13획 · 부수 阜



hanja.wordrow.kr/한자/隕/

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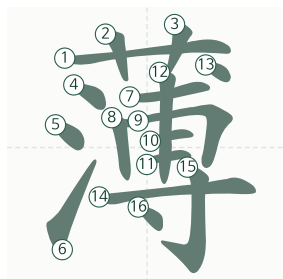
뜻·음 말 마
총 10획 · 부수 馬



hanja.wordrow.kr/한자/馬/

薄

뜻·음 얇을 박
총 17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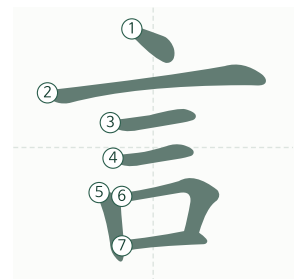


사전 17획 · 획순 그림 16획

hanja.wordrow.kr/한자/薄/

言

뜻·음 말씀 언
총 7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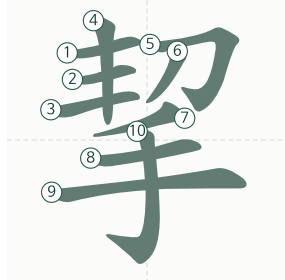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挈

뜻·음 끌 설 / 이지러질 계

총 10획 · 부수 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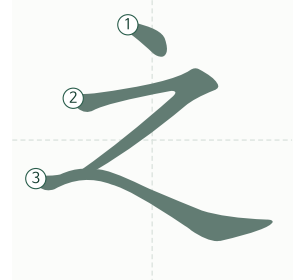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挈/

之

뜻·음 갈 지

총 4획 · 부수 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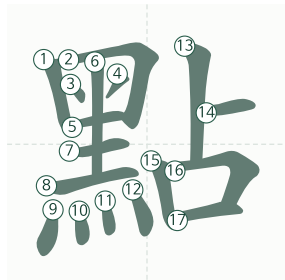
사전 4획 · 획순 그림 3획

hanja.wordrow.kr/한자/之/

點

뜻·음 점 점

총 17획 · 부수 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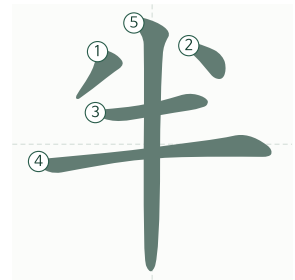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點/

半

뜻·음 반(半) 반

총 5획 · 부수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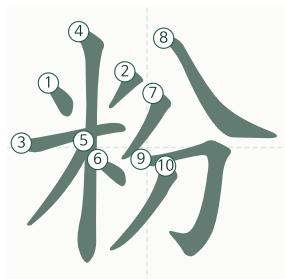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半/

粉

뜻·음 가루 분

총 10획 · 부수 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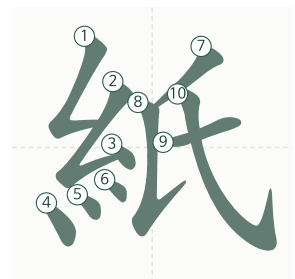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粉/

紙

뜻·음 종이 지

총 10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紙/